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January 2026 Issue | Vol. 01

SPECIAL POINTS OF INTEREST

- 필리핀 경제 리뷰 & 전망: 성장 둔화와 신뢰 약화 속에 2026년을 뒤덮는 정치적 리스크
— page 1-2
- 전자제품 19% 미국 관세 면제로 GDP 충격 제한될 것으로 전망
— page 3-4
- 수출 부진 속에도 국내 공장, 2025년 소폭 성장 마감
— page 4-5
- IMF, BSP에 “은행 제조업 대출 추적하라” 권고
— page 5
- 필리핀, 외국어·기계 조작 분야에서 가장 큰 기술 격차—ADB
— ADB —page 6
- ‘생성형 AI, IT-BPM 산업 재편’
— page 6-7
- PCC, 온라인 사건 신고 시스템 출시
— page 7

필리핀 경제 리뷰 & 전망: 성장 둔화와 신뢰 약화 속에 2026년을 뒤덮는 정치적 리스크

January 05, 2026 | Ruelle Castro | Malaya Business Insight

영국에 본사를 둔 팬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Pantheon Macroeconomics)는 이례적인 홍수 통제 사업으로 촉발된 정치적 리스크가 2026년까지 필리핀 경제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장세는 이미 가계 수요와 민간 투자 약화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부담은 3분기에 여실히 드러났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로 급격히 둔화했으며, 이는 공공사업과 연계된 부패 수사 확대와 시점이 맞물린 결과였다.

이러한 둔화로 인해 팬테온의 신흥 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미겔 찬코(Miguel Chanco)는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4.9%로 하향 조정했으며, 2026년 전망 역시 5%로 낮췄다. 이는 정부가 설정한 5.5~6.5% 목표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이후 경제 당국도 이러한 변화된 흐름을 인정했다. 아르세니오 발리사칸(Arsenio Balisacan) 경제기획개발부(DEPDev) 장관은 12월 초, 연간 성장률이 기존 예상보다 낮은 약 5% 수준에 머물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 긴축과 그 파급 효과

3분기 성장 둔화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정부 지출의 급격한 감소였다. 공공사업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고 지출 집행 규정이 엄격해지면서 공공 건설 부문이 위축됐고, 이에 따라 청구 절차가 지연되며 기업들의 투자 및 사업 의욕도 약화됐다.

일본계 증권사 노무라증권(Nomura Securities Co., Ltd.)은 재정 긴축의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2026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며, 그 영향이 가계 소비에서 민간 투자로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무라는 상반기까지 성장세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다가, 하반기에 이연된 수요에 따른 보복 소비가 나타나며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성장률 전망치는 5.3%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는 개발예산조정위원회(DBCC)가 설정한 정부 목표치인 6~7%를 밑도는 수준이다.

낙관론은 어떻게 무너졌나

2025년 말의 상황은 연초의 분위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2024년 성장률이 5.6%를 기록하며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성장국 가운데 하나로 부상한 이후, 선거 관련 지출과 CREATE MORE 법안,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법(Capital Markets Efficiency Promotion Act) 등 개혁 조치가 시행되면서 낙관론이 확산됐다.

그러나 이러한 모멘텀은 대외·대내 충격으로 중단됐다.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로 협상 이후 필리핀은 19%의 관세율에 직면하게 됐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 역시 불확실성을 키웠다. 연중 중반에 이르러 정부는 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

결정적인 균열은 이른바 ‘유령’ 또는 실체가 없는 홍수 통제 사업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발생했다. 건설업체 9곳의 면허가 취소됐고, 기업 임원과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으며, 당국은 해당 비리와 연관된 자산 규모를 약 1,000억~1,500억 페소로 추산해 추적에 나섰다. 자금세탁방지위원회(AMLC)는 이 중 203억 페소를 동결했으며, 추가 자산은 자진 반납되거나 경매를 통해 회수됐다.

이후 대중 시위가 이어지면서 제도적 신뢰 붕괴와 거버넌스 실패에 대한 인식이 더욱 강화됐다. [Cont. page 2]

필리핀 경제 리뷰 & 전망: 성장 둔화와 신뢰 약화 속에 2026년을 뒤덮는 정치적 리스크

[Cont. from page 1]

일부 지표는 안정세 유지

모든 지표가 악화된 것은 아니었다. 물가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며, 11월 인플레이션율은 1.6%로 둔화됐고 연초 이후 평균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로 인해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 BSP)은 올해 들어 다섯 번째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했으며, 기준금리는 4.50%로 낮아졌다. 이는 2024년 고점 대비 누적 2.0%포인트 인하한 수준이다.

고용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노동시장에 새로 유입되는 인력을 모두 흡수하기에는 속도가 충분하지 않았다. 10월 실업률은 5%로, 실업자 수는 약 254만 명에 달했다.

해외 송금은 건조한 흐름을 유지했다. 연초부터 10월까지 현금 송금액은 29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다. 한편 제조업체들은 신규 프로젝트와 예상 수요를 근거로, 2024년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향후 생산 전망에 대한 신뢰를 보고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은 아니다. 필리핀 경제특구청(PEZA)은 2025년 한 해 동안 2,609억 페소 규모의 투자를 승인했으며, 이는 목표치를 약 22% 초과한 수치다.

2026년: 조진부 성장

필리핀 개발연구원(PIDS)의 이코노미스트들은 2026년 성장률을 5.3%로 전망했으며, 이는 민간 부문 전망과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이들은 현재의 결정적 제약 요인이 더 이상 인플레이션이나 유동성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진정한 병목은 신뢰에 있다”고 강조하며, 거버넌스 신뢰 훼손, 법 집행의 불균형, 그리고 공론장을 지배하는 반복적인 부패 스캔들을 그 배경으로 들었다.

또한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책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투자자 신뢰는 가시적인 사법 정의, 공정한 법 집행, 그리고 공공 서비스의 청렴성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리잘상업은행(Rizal Commercial Banking Corp.)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리카포트(Michael Ricafort)도 같은 견해를 밝히며, 신뢰할 수 있는 반부패 조치가 투자자들을 다시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데 빠져 있는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구호가 아닌 개혁

필리핀 개발연구원(PIDS) 연구진은 현재를 거시경제의 기초 여건이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드문 기회의 창”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제도적 개혁—특히 교육, 자본시장, 규제 조정 분야—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경제는 평범한 성장률에 안착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드라살 대학교(De La Salle University)의 이코노미스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생산성 제고와 6% 이상 성장 지속을 위해 재산업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뢰할 수 있는 산업 전략과 현실적인 재정 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에 갇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 리스크의 상존

통화 완화와 재정 지출 확대가 일정 부분 지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정치적 리스크는 여전히 큰 부담으로 남아 있다.

유니온뱅크(UnionBank)는 인프라 비리 스캔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실질적인 유죄 판결과 지속적인 제도 개혁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루벤 카를로 아순시온(Ruben Carlo Asuncion)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들은 이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퍼스트 그레이트 파이낸싱(First Grade Financing)의 아스트로 델 카스티요(Astro del Castillo)는 헌법상 제한이 해제될 경우 탄핵 절차 재개 가능성을 포함해 2026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투자자들은 지속적인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며, 미해결된 통상 리스크와 아웃소싱을 겨냥한 미국의 추가 조치 제안이 전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베테랑 시장 참여자는 정치적 마찰과 외국인 투자자 신뢰 약화를 이유로 필리핀 주식에 대한 노출을 줄였다고 밝혔다. 그는 “전반적인 환경이 혼란스럽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다가오는 시험대

종합해 보면 2026년의 전망은 붕괴도, 반등도 아니다. 시험대에 가깝다.

거시경제 완충 장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물가는 안정적이고, 유동성도 충분하다. 그러나 제도, 법 집행,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는 취약하다.

성장이 가속화될지, 정체될지는 전망치보다 신뢰성에 달려 있다. 시장과 가계 모두에게 2026년은 개혁의 약속이 아니라, 국가가 그것을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해가 될 것이다.

전자제품 19% 미국 관세 면제로 GDP 충격 제한될 것으로 전망

January 04, 2026 | Kenneth Christiane L. Basilio | BusinessWorld



경제기획 당국은 필리핀 수출품에 부과된 미국의 19% 관세가 전자제품 면제가 유지될 경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약 0.1%포인트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기획개발부(Department of Economy, Planning, and Development · DEPDev)에 따르면, 미국 관세의 영향은 GDP의 약 0.1211%에 해당하며, 이는 약 4억 8,960만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이 수치는 하원위원회에 제출된 시뮬레이션 결과를 근거로 하며, <BusinessWorld>가 해당 자료 사본을 입수했다.

만약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가 제거될 경우, 영향은 소폭 상승해 GDP의 0.1236%, 즉 약 5억 89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

“실질 GDP에 대한 추정 부정적 영향은 단기적 효과에 한정되며, 중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제기획개발부(DEPDev)는 보고서에서 밝혔다.

미국은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적자 축소와 국내 제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8월 7일부터 필리핀산 제품에 19%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필리핀 GDP에 대한 이번 영향은 이미 인프라 지출 부진으로 경제가 둔화되는 시점에 맞물렸다. 3분기 성장률은 4%로, 최근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연간 5.5~6.5%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필리핀 관세위원회(Tariff Commission · TC)는 필리핀 경제를 “소비 주도형” 이자 “서비스 중심형” 으로 평가하며, 일부 글로벌 무역 변화의 영향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의 상당 부분이 수입에 직접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며, 필리핀 수출품에 대한 추가 관세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 이라고 별도 보고서에서 밝혔다. 이 보고서 역시 <BusinessWorld>가 입수했다.

경제학자들은 필리핀이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무역 시장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필리핀은 캐나다 및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 중이다.

리잘상업은행(Rizal Commercial Banking Corp.)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L. 리카포트(Michael L. Ricafort)는 필리핀이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아시아, 중동, 유럽의 부유한 국가들과 무역 협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리핀 개발연구원(PIDS) 선임 연구원 존 파올로 R. 리베라(John Paolo R. Rivera)는 Viber를 통해 “단기 충격을 중기적 이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필리핀이 수출 시장을 다각화하고, 부가가치 사다리를 높이며, 투자 축진을 가속화해 기업들이 공급망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또한 “무역 특혜 확보, 물류 및 전력 비용 개선, 수출업체 생산성 지원이 핵심적이며, 이를 통해 관세 압력이 경쟁력 약화가 아니라 산업 업그레이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경제기획개발부(DEPDev)는 정부가 “국내 이익을 보호하면서 무역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관세 정책의 면제 대상에는 필리핀의 대미 주요 수출품인 일부 농산물과 전자제품이 포함돼 있다.

DEPDev는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보복 관세가 면제된 분야에서는 수출 증가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고 설명하며, 운송 장비, 목재 제품, 금속 및 광물 제품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이 필리핀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철회할 경우 수출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세위원회(TC)에 따르면 필리핀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과 23억 8,000만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TC는 “미국은 필리핀의 최대 수출 시장이자 네 번째로 중요한 수입국이었다” 고 밝혔다. 또한 19% 관세는 필리핀산 제품의 미국 내 가격을 17억 달러가량 상승시켜 미국 소비자에게 더 비싸게 만들고, 제조업체의 수요와 수출 판매를 둔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Cont. page 4]

전자제품 19% 미국 관세 면제로 GDP 충격 제한될 것으로 전망

[Cont. from page 3]

필리핀과 미국 간 상호 수입 협정에 대한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다. 7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필리핀이 미국산 대두, 밀, 의약품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고 관세를 0%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위원회(TC)에 따르면, 미국산 밀은 평균 최혜국(MFN) 관세율 2.6%가 적용되며, 대두는 0.96%, 의약품은 1.95%, 자동차는 27.64%의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이 필리핀 관세 면제를 요구하는 제품은 미국으로부터의 전체 수입의 약 16%를 차지한다고 TC는 밝혔다.

TC는 “해당 품목의 MFN 관세율을 0%로 낮출 경우 2026년 관세 수입이 약 57억 3천만 페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이러한 0% 관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손실이 30억~60억 페소 범위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리베라(John Paolo R. Rivera) 연구원은 정부가 선택된 미국산 제품에 대한 0% 관세 조치로 발생하는 세수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징수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원가 절감, 건강 접근성 확대, 수출 증대 등 하류 활동이 증가하면 세수를 회복할 수 있다. 단, 이를 위해서는 개혁과 함께 재정 지출의 절제, 목표 지향적·기간 제한적 인센티브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6/01/04/722204/electronics-exemption-from-19-us-tariff-seen-limiting-gdp-impact/](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6/01/04/722204/electronics-exemption-from-19-us-tariff-seen-limiting-gdp-impact/)

수출 부진 속에도 국내 공장, 2025년 소폭 성장 마감

January 02, 2026 | Ricardo M. Austria | Manila Bulletin

필리핀 제조업 활동은 12월 국내 수요 회복에 힘입어 소폭 확장세를 나타냈다. 이는 수개월간 침체를 겪고, 인프라 사업 관련 부패 수사가 확대되며 어려움을 겪던 업계에 잠시나마 숨통을 틔워주는 소식이다.

금융정보사 S&P 글로벌이 1월 2일 금요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11월 47.4에서 12월 50.2로 상승했다.



이번 지수는 성장과 축소를 구분하는 50포인트 기준을 겨우 상회했지만, 8월 이후 처음으로 제조업 운영 환경이 개선된 것을 나타낸다. 이번 반등은 11월 지수 하락 이후 나타났는데, 당시 수치는 4년 만에 제조업 건강 상태의 가장 큰 악화를 기록한 바 있다.

회복세는 주로 신규 주문 증가에 의해 주도됐다. 3개월 연속 감소하던 주문 흐름이 끝난 것이다.

S&P 글로벌은 성장 속도가 완만하긴 했지만, 4월 이후 가장 두드러진 개선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수요 회복은 필리핀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 부진을 상쇄하는 데 기여했다. 계절 조정된 수출 주문 지수는 1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며 여전히 축소 국면에 머물렀다.

주문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핵심 지역은 구조적 병목 현상에 직면해 있다. 공장 생산량은 신규 주문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며 4개월 연속 축소세를 이어갔는데,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긴 연속 하락 기록이다.

물류 문제도 계속됐다. 연말 항만 혼잡과 이상 기후 패턴으로 인해 원자재 조달 리드타임이 길어졌다고 제조업체들이 보고했다.

주문 증가와 생산 정체 간 불균형은 미결 주문(backlog) 증가로 이어졌으며, 일부 기업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구매 활동을 재개했다.

노동 시장은 여전히 압박을 받았지만, 일자리 감소 속도는 11월보다 크게 둔화됐다. 필리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0월 전국 실업률은 5%로, 약 254만 명의 필리핀인이 일자리를 잃은 상태였다.

가격 압력은 다소 강해지는 조짐을 보였지만,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 내에 있다.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비용 상승을 보고했으며, 이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려 하면서 생산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Cont. page 5]

수출 부진 속에도 국내 공장, 2025년 소폭 성장 마감

[Cont. from page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 가격 상승폭은 장기 평균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경제 전반의 냉각 흐름과도 맞물리는데, 2025년 1~11월 기준 전체 소비자물가는 평균 1.6%를 기록해 중앙은행 목표치 2~4%를 여유 있게 밑돌았다.

향후 1년간 기업 신뢰지수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신제품 출시와 지연됐던 프로젝트 착수에 대한 기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낙관 정도는 11월 기록한 1년 만의 최고치보다 다소 낮아졌다. 경제학자들은 회복세가 여전히 취약하며, 국내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S&P 글로벌의 이코노미스트 마리암 발루치(Maryam Baluch)는 “제조업 전반의 개선세는 미미하며, 향후 지속 가능성은 수요가 유지되고 추가로 강화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수출 시장이 지속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필리핀 산업 전망은 정부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내부 지출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점점 더 크게 좌우되고 있다.

Source: <https://mb.com.ph/2026/01/02/local-factory-ends-2025-with-slight-gains-despite-export-weakness>

IMF, BSP에 “은행 제조업 대출 추적하라” 권고

January 01, 2026 | Reine Juvierre S. Alberto | BusinessMirror



국제통화기금(IMF)은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이 제조업 부문에 대한 은행들의 대출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화된 기업 수익과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필리핀 금융 시스템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IMF는 2025년 아티클 IV(Article IV) 협의 이후 발표한 최신 국가 보고서에서 제조업 부문을 지적하며, 수익성이 여전히 “약하다”고 평가했다.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제조업, 도·소매업에 대한 은행 대출은 국내 전체 대출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다.

IMF는 이러한 대출이 글로벌 무역의 부정적 전개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은행들의 해당 부문 대출이 모니터링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IMF에 따르면 일부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감독을 받지 않는 비은행 금융기관(NBFI) 역시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NBFI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지만, 부동산, 소비자 대출, 중소기업(MSME)에 대한 대출 활동을 확대해 왔다.

동시에 IMF는 일부 지역과 시장 부문에서 상업용·주거용 공실률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는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팬데믹 이전 건설 붐으로 인한 공급 과잉, 메트로 마닐라에서 필리핀 오프쇼어 게임 운영업체(POGO)의 철수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는 주거용 부동산 가격과 대출 성장이 전조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6월 말 기준 주거용 부동산 부실대출 비율(NPL)은 6.4%였다.

또한, BSP는 가계 부채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는 부동산 대출, 신용카드·급여대출 등 은행 신용의 급속한 확대, NBFI 및 디지털 금융 플랫폼을 통한 신용 접근 확대에 기인하며, 낮은 가계 저축률과 맞물려 있다.

팬데믹 이후 은행의 공공 부문 노출도 증가했다. IMF는 “복잡한 대기업 구조를 포함한 은행과 기업 부문의 상호 연결성은 금융 시스템에 위협을 노출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IMF는 또한 기업들의 채무 상환 능력이 낮은 비율이 팬데믹 이전보다 감소했지만, 여전히 그 이전 수준보다 높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Image credits: [UMBLEEED](#) | [DREAMSTIME.COM](#)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6/01/01/imf-to-bsp-track-bank-manufacturing-loans/>

필리핀, 외국어 · 기계 조작 분야에서 가장 큰 기술 격차—ADB

January 04, 2026 | Aubrey Rose A. Inosante | BusinessWorld

아시아개발은행(ADB)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 근로자들은 남녀 구분 없이 언어 능력과 기계 조작 능력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스스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DB는 보고서 「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노동 대비(Harnessing Survey Data to Shape the Future of Work)」에서, 필리핀 근로자들이 자기평가를 기준으로 읽기, 쓰기, 기초 수리 능력은 직무 요구 수준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보았으나,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은 상대적으로 덜 일치한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BW FILE PHOTO

직무 요구 수준에 대한 기술 자기평가 결과, ADB는 조사 대상 남성의 39%, 여성의 27.3%가 외국어 능력에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자신의 숙련도를 기준 이하이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남성의 경우, 다른 주요 기술 격차는 기계 및 장비 조작(26.5%), 프로젝트 관리 및 조직 능력(23.6%),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20.2%), 팀워크 및 리더십 능력(19.3%) 순이었다.

여성의 경우에는 기계 및 장비 조작(25.4%), 프로젝트 관리 및 조직 능력(23.7%),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17.6%), 팀워크 및 리더십 능력(16.8%)이 주요 자기 보고 기술 격차로 나타났다.

ADB는 일부 기술 분야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숙련도 적합성 및 자기 평가된 기술 격차 추세는 남성과 여성 모두 대체로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은행은 “필리핀에서는 남성이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운전하거나, 중장비를 사용하는 등 체력 소모가 큰 수작업에 여성보다 더 많이 참여했으나, 정밀 작업이나 장시간 육체 활동에서는 성별 차이가 좁았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필리핀은 남녀 모두를 합쳐 전체 기술 적합성 수준이 71.8%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부탄(92.6%)과 조지아(78.8%)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6/01/04/722201/phl-skills-gap-most-apparent-in-foreign-languages-machinery-operation-adb/>

‘생성형 AI, IT-BPM 산업 재편’

January 04, 2026 | Keisha Ta-Asan | The Philippine Star



Bangko Sentral ng Pilipinas.

Philstar.com / Irra Lising

BSP, 재교육(Reskilling) 시급 경고

필리핀 마닐라 — 생성형 인공지능(GenAI)은 단기적으로 필리핀 정보기술·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IT-BPM) 산업에서 일자리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 보고서가 밝혔다.

BSP는 경제 뉴스레터를 통해,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결과를 근거로 GenAI가 비즈니스 운영을 재편하고 있으며, 급속히 변화하는 AI 기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의 재교육(Reskilling)과 역량 강화(Upskilling)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BSP는 “일자리 대체와 기술 노후화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생성형 AI는 현재 시스템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도구이자 파트너로 봐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직원과 기업 모두가 부가가치 사다리(Value Chain) 상향에 나설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IT-BPM 산업은 여전히 필리핀 경제의 주요 축이다. 2024년 말 기준, 필리핀은 글로벌 IT-BPM 시장에서 18%의 점유율로 인도(40%)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 부문은 외환 획득의 핵심 원천으로, 2024년 32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며 국내총생산(GDP)의 6.9%를 차지했다. 이는 해외 필리핀인들의 송금액 345억 달러(7.5% GDP)와 비슷한 수준이다.

필리핀 BPO(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부문 수익도 2023년 297억 달러에서 2024년 약 320억 달러로 7.7% 증가했으며, IT-BPM 인력은 정규직 180만 명으로 7% 확대됐다. [Cont. page 7]

‘생성형 AI, IT-BPM 산업 재편’

[Cont. from page 6]

총 IT-BPM 인력 중 **160만 명(88.5%)**이 컨택트센터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2025년 1분기 BPO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7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장 속에서 AI 도입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필리핀 IT·BPM 협회(IT and Business Proces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IBPAP) 조사에 따르면, IT-BPM 회원사의 67%가 AI 도구를 운영에 도입했다. 여기에는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RPA), AI 기반 분석, 대화형 챗봇, 상호작용 요약 및 최적 대응 추천 기능을 제공하는 고급 음성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그럼에도 반복적·일상적 업무에 의존하는 직무에서는 일자리 대체 우려가 존재한다. 그러나 업계 데이터는 보다 세분화된 영향을 시사한다.

2024년 4분기 IBPAP 조사에 따르면, AI 도구를 사용하는 기업의 29%는 업무 구조 변화가 없었다, 즉 AI가 주로 업무 보조(Job Augmentation)에 활용되었다는 의미다.

한편, AI 도입으로 **고용이 감소한 기업은 8%**였으나, **AI 미세 조정(Fine-Tuning), 데이터 주석(Data Annotation), GenAI 콘텐츠 제작 등 신규 직무로 인해 일자리가 증가한 기업은 13%**로 나타났다.

기회가 존재하지만, 도전 과제도 남아 있다. BSP는 특히 GenAI 및 데이터 분석 전문 인력 부족, 높은 도입 비용,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문제, 데이터 프라이버시 우려, 규제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기술교육역량개발청(Technical Education and Skills Development Authority)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IT-BPM 부문에는 100만 개 이상의 미충원 일자리가 존재했으며, 웹 개발자, 프로그래머, 콜센터 상담원, 가상 비서 등 전문 직무에서 공급 부족이 두드러졌다.

BSP는 향후 3년 내에 전면적 GenAI 도입은 규모 확대 및 규제 문제로 인해 예상되지 않지만, GenAI는 업무 효율을 높이고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파트너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기술 변화 속에서 IT-BPM 산업이 부가가치 사다리를 상향할 수 있도록 기술과 인적 자본에 대한 적절한 투자가 필수적이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6/01/04/2498524/genai-reshaping-it-bpm-industry>

PCC, 온라인 사건 신고 시스템 출시

January 06, 2026 | Louella Desiderio | The Philippine Star

필리핀 마닐라 — 필리핀 경쟁위원회(PCC)가 시민들이 반경쟁적 행위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출시했다.

PCC는 성명에서 이번 온라인 사건 신고 시스템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으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https://ccms.phcc.gov.ph>에서 온라인 사건 신고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들은 서류를 업로드하고 사건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어 신고 과정을 간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전에는 반경쟁적 행위를 신고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고, 직원 개입도 필요했다.

PCC의 마이클 아가날도(Michael Aguinaldo) 위원장은 “이번 시스템은 시민들이 공정 경쟁을 지키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다.

신고를 더 빠르고, 간편하며, 안전하게 만들어 모두를 위한 공정한 시장 확보를 위한 우리의 공동 노력을 강화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투명성, 효율성, 소비자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PCC의 의지를 반영한다.

PCC는 필리핀 경쟁법(Philippine Competition Act, PCA)을 집행할 의무를 가진 기관이다. PCA의 목적은 소비자 복지를 보호하고 시장 경쟁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PCA는 반경쟁적 행위, 지배적 지위 남용, 반경쟁적 기업 합병 및 인수를 금지하고 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6/01/06/2498995/pcc-launches-online-case-reporting-system>



In a statement, the antitrust agency said the online case reporting system was developed with support from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STAR / File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Our Areas of Expertise



PROPERTY INSURANCE 재물

Industrial All Risks 재산종합 | Fire Broad Named Perils 화재 |
Commercial All Risks 영업종합 | Machinery Breakdown 기계
Business Interruption 기업휴지 | Contractors' All Risks 건설종합 |
Equipment Floater 장비



MOTOR 자동차

CTPL 책임보험 | Comprehensive 종합보험 | Fleet Policy 그룹증권



PEOPLE SOLUTIONS 직원복지

Life 생명 | HMO 의료실비 보험 | Clinic Management 의료관리 |
Key Person Insurance 경영자보험



MARINE INSURANCE 적하/물류

Single Shipment 수입/수출 일회운송 | Marine Open 수입/수출 연간보험 |
Inland / Inter-island 내륙운송/섬간 이동 운송 | Stock Throughput 물류종합



ACCIDENT & TRAVEL 상해 & 여행자

Personal Accident (Individual & Group), Travel (Individual & Group)



LIABILITY 배상책임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영업배상 | Product Liability 생산물배상 |
Freight Forwarders' Liability 물류업자배상 |
Professional Indemnity 전문인배상 | Directors and Officers 임원배상



OTHERS 기타보험

Bonds 보증보험 | MSPR 현금도난 | Fidelity 신원보증 | Trade Credit 신용보험 |
Political and Terrorism 정치적위험 및 테러 | Cyber Insurance 사이버보험

We Answer To No One But Our Clients

Lockton Philippines Insurance & Reinsurance Brokers, Inc.

29th and 36th Floors, Rufino Pacific Tower, 6784 Ayala Avenue corner
V.A. Rufino Street, Makati City, Philippines 1200

+632 8811 0388 info.philippines@lockton.com

For Korean accounts, you may contact Hye-Won "Eunice" Park 박혜원 팀장
eunice.park@lockton.com +63 917 854 7930

